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름값…주유소 가기 겁난다

광주·전남 휘발유 ℓ당 1800원…1700원대 경유 ‘공포’ 엄습

서민들 부담 가중…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소식은 ‘단비’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주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기름 넣을 때마다 속이 타네요. 얼마까지 오르려는지 걱정입니다….”

직장인 염상엽(32·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최근 주유소를 들를 때마다 겁이 난다. 하루가 지나면 오르는 기름값 때문이다.

광주에서 영암으로 출퇴근 하는 염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약 100㎞. 염씨의 차량은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를 연료로 하지만 최근 경유값도 급격히 오르면서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기름을 가득 넣어도 8만원 정도면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1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했다.

염씨는 “한 달 유류비만 50만원에 달한다”며 “경유차는 요소수도 넣어야 하는데 최근 요소수 값도 ℓ당 1000원에서 1400원 정도로 올라 이중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한숨을 쉬었다.

직장인 김주선(여·28)씨는 기름값 부담에 최근 직장 동료와 함께 출퇴근 하는 ‘카풀’을 시작했다.

김씨의 직장은 광주시 남구 덕남동인데 대중교통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출퇴근에 자가용 이용이 필수지만 기름값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와 출근 전 연락해 약속시간을 정하고, 퇴근시간에는 때때로 서로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카풀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물가도 비싼데 기름값마저 올라 여간 부담이 아니다”며 “곧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앞두고 있는데, 카풀인원을 더 찾아봐야 하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휘발유 ℓ당 가격은 1800원, 경유는 ℓ당 1700원 목전에 두고 있어 시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72.26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전날보다 0.47원 오른 ℓ당 1794.07원을 기록했다. 지역에서 휘발유가 ℓ당 1800원대는 기록한 건 지난해 8월 2째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특히 경유값이 심상치 않다. 경유의 경우, 광주는 이날 ℓ당 1681.30원, 전남은 1698.21원이었다.

경유는 지난 7월 둘째주 1390.06원에서 7월 넷째주 1403.39원을 기록하더니 8월 다섯째주에 1613.99을 기록했다. 이후 휘발유와 함께 12주 연속 상승 중이다.

경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21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 6월 1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은행권에서는 연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향후 12개월 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경유를 사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5월 벌어졌던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공포도 엄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의주시하다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흐름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의 추가연장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ℓ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로 두 차례 더 연장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완화

국토부, 피해자 회생·파산·손배상청구 등 법률비용 250만원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었다. 2억4000만원 대출해줬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도 늘린다.

저리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1억3000만원으로 높이되,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000만원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규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창립 55주년 기념 ‘The플러스예금’ 출시

금리 최고 연 4.0%~4.1%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5일 ‘The플러스예금’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창립 55주년 기념 고객감사 이벤트’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The플러스예금’은 개인이 영업점 방문,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법인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특별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The플러스예금’은 ▲6개월제 최고 연 4.0%(기본 연 3.5%) ▲1년제 최고 연 4.1%(기본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총 판매한도는 3000억원으로 기간 중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특별 우대금리는 조건은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예금을 가입한 경우 0.35%포인트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예금을 가입하고, 가입일 전일자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당행 정기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거래 또는 해지 거래가 없는 경우(신규취소 거래 제외) 0.5%포인트다.

김두봉 영업추진부장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양에너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문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지난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

㈜해양에너지는 지난 6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고, 회사 순찰차량 200여대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시관 관람은 채용연계형 인턴사원 10여명도 함께 했다. ㈜해양에너지 인턴사원들은 “매번 비엔날레를 관람하러 왔었는데, 도슨트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며 관람하긴 처음이었다”며, “환경 및 ESG 관련 작품들도 많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 달성에 노력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3.60(-2.09)
↓	코스닥	801.02(-6.38)
↓	금리 (국고채 3년)	4.081(-0.027)
↓	환율 (USD)	1350.50(-13.00)

김 수출 검사 지원 기업 모집

aT, 11월까지…최대 5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2023년 김 수출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오는 11월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 수출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은 수출용 김의 중금속·미생물·세균·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김 수출 중소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의 80%를 지원받는다.

사업예산 2억 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대기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수출 검사비를 중복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된다.

조규선 수산사업단장은 “한국 김을 수입하는 국가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품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 수출이 지속 증가하도록 안전성 검사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http://global.at.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6, 0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가격 낮춘 해남·영월산 절임배추 예약하세요”

롯데마트·슈퍼, 11일까지

롯데마트와 슈퍼는 11일까지 해남·영월산 절임배추를 예약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해남산 절임배추는 2만원대로 롯데마트와 슈퍼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는 예약 판매 절임배추 상품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해남군청이 제조공장을 직접 관리해 출고하는 상품이라 품질 또한 보증된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그동안 마트에서 단독으로 판매해온 영월산 절임배추는 이번에 슈퍼로 판매처를 넓혔다. 슈퍼·마트 공동 계약을 통해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0% 늘었다.

예약구매 고객은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또 금산세계인삼축제 개최(10월 6일~15일)를 맞아 금산 인삼 3종을 오는 18일까지 약 30% 할인해 판매한다.

인삼 소비 촉진과 농가 수익 확대 등을 위한 행사로, 롯데마트·슈퍼 채소팀이 직접 산지를 방문해 상품을 확인하는 등 2개월간 공동으로 준비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명절 이후에도 채소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고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배추와 인삼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행사를 기획했다”며 “마트와 슈퍼의 공동 소싱(조달)으로 가격을 시세보다 크게 낮춘 만큼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역 인재 63명 채용

11일까지 원서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5일 본사 ‘2023년도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따라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전남권역 지역전형의 채용 인원은 5급(25명), 6급(9명), 7급(29명) 등 총 63명이다.

지역전형 지원 자격은 광주·전남 지역 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다. 지역전형 합격자는 5년 간 해당 지역 또는 부서(지사)에 의무 근무해야한다. 5·6급의 경우 전남 내, 7급은 응시 부서(지사) 5년간 의무근무 조건이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역 시·군 지자체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고교 진학상담실과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등을 찾아 신규 채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문과 채용 누리집(https://krc.recruiton.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